



식물生産性 임의조절 가능

—美학자, 化學合成劑 개발—

벌지 앵과 과일나무와 여타 식물들의 생산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생화학자들이 최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너」시에 있는 미연방 과일연구실험실의 「H 요코하마」박사와 농무성 과일연구실험실의 「막스 윌리엄즈」연구원은 최근 미국화학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학합성제를 사용, 대두나무의 생산성을 30%, 그리고 대두의 단백질 함유량을 62%씩 각각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윌리엄즈」연구원은 이어 자신들은 과일나무의 키를 조절할 수 있는 화학합성제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나무의 키를 조절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과일을 좀더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糖尿病에 설탕 禁忌아니다

당뇨병 환자는 설탕을 피해야 한다는 일반

적인 통념과는 달리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은 당뇨병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균형있는 식사와 몸무게의 유지만 가능하다면 설탕을 멀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22명의 당뇨병 환자와 10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5일동안 다섯가지의 각기 다른 음식을 먹여 실험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이 다섯가지의 음식 속에는 똑 같은 양의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을 넣고 설탕은 음식마다 다르게 집어 넣었다. 그 결과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설탕이 血糖量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뇨병 환자라도 식사 때 적당한 양의 설탕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별다른 해가 없다고 말하면서 너무 설탕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美, 日에 農産物쿼터 協商요구

미국행정부는 미국농산물 1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 부과문제와 관련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분쟁타결 방식에 따른 공식협의를 일본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美國 무역특사의 한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對日 협의요구가 빠른 시일내에 제네바의 GATT본부에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國은 지난 63년 이래 미국산 농산물에 대

한 日本의 쿼터부과문제를 협상해 왔는데 公式協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번 방침은 GATT방식에 따른 좀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타결하려는 1단계 조치인 것이다.

이 대변인은 日本의 쿼터부과가 미국의 농산물수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규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수입쿼터를 부과한 品目은 牛乳와 크림, 가공치이즈, 토마토케찹, 돼지고기 및 쇠고기통조림, 과일주스 등이다.

페루, 가공식품류 수입에 품질증명서 의무화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공업성결정 제 84-423을 통해 통조림, 위스키등 가공식품류의 수입에 페루공업기술표준검사소(ITINTEC)발행하는 품질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동결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위해 다음 2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 ITINTEC에 수입물품 원산지 국가의 공업검사기관 발행 품질증명서 및 동 번역문을 페루 국내 품질증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 수입업자가 ITINTEC에 수입물품 샘플을 제출하여 직접 품질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

이러한 결정은 8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품질증명서 없이는 가공식품류의 수입통관이 불가능한데, 페루정부는 동조치의 목적을 염가, 저질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

를 보호하고 덤핑공세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大豆 및 大豆제품 수출 제한 조치

브라질 정부는 大豆 및 大豆제품을 현시세보다 낮은 事前결정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지시켰다고 聯邦輸出入局(CACEX)이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업자들이 최근 국제가격의 급등 덕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추가외환소득을 정부에 신고치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재무성은 앞서 大豆수출이 전면중지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 CACEX가 수출허가서에 현시세를 기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本에서 11개 食品添加物 사용 승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이 금지됐던 11개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것은 식품수입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고 알려졌다.

일본 후생성은 식품첨가물 사용규제에 관한 수정지침을 발표하고 이산화규소, 산화티탄, 아디핀산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11개 종류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식품첨가물의 수는 총 336가지에서 347가지로 늘어났다.

후생성이 일본 소비자보호단체들의 강경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시장개방 노력의 하나로 식품첨가물의 수입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후생성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승인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은 최종 생산식품에 대한 잔류성이 없는 이산화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품포장에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

'83~'84년 설탕생산 減收예상

올해 세계 설탕생산은 3년만에 처음으로 소비수요에서 약 200만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런던의 설탕거래업자들이 예상했다.

설탕거래업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83~'84년 수확기중 원당기준 설탕생산량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등 주요 생산국들의 예상생산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원래 예상보다 90만톤이 줄어든 9,378만톤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해('82~'83년)의 9,952만톤, 81년('81~'82년 수확기)의 1억 38만톤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올해 세계 설탕 소비예상량 9,586만톤에서 200만톤 가량 모자라는 것이다.

日本 식품시장의 豆乳戰爭

日本の 식품시장에도 豆乳 판매전이 치열하다.

건강식품의 인기와 함께 3년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豆乳시장에 우유회사, 맥

주회사, 화학회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80개 회사들이 뛰어들어 250억엔 규모로 알려진 시장을 놓고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고 있다.

豆乳는 콜레스테롤이 되지 않는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여 점차 「분」을 일으켜 오면서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자 農林水産省은 81년 가을 豆乳의 日本農林規格(JAS)을 제정하고 순수한 「豆乳」, 감미료를 첨가한 「調製豆乳」, 과즙 등을 섞은 「豆乳飲料」등 3종의 시판을 인정했다.

美, 옥수수 生産 半減 在庫도 減少예상

美國 USDA가 최근 발표한 금년도 作況報告에 의하면 1983/84년도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전년도 보다 12%나 적은 6억 8,500만톤, 기말재고는 52% 감소한 7,150만톤이 될 것이라 한다. 이는 주로 옥수수 생산 및 재고감소로 인한 것으로 금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은 전년대비 20%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고는 63%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및 재고감소의 주요 요인은 減産政策과 氣象異變으로 인한 美國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이 지난해 보다 48%, 즉 1억여톤이 적은 1억 1,150만톤에 그칠 것이며 재고는 전년도 말의 1/4수준인 2,300만톤이 될 것이라는데 있다. 이로 인해 금년도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은 전년대비 44%, 재고는 66%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